

##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

### □ 간담회 개요

- (일시) '24. 9. 25.(수) 16:00 ~ 17:30
- (장소)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실(6층)
- (참석) 행복위 위원, 자율방범대연합회 임원, 집행부 관계공무원
  - 행복위(7명): 김현미 위원장, 김영현 부위원장, 김충식·상병현·여미전·이순열·홍나영 위원
  - 자율방범대연합회(5명): 최영환 회장 등 임원진
  - 집행부(자치경찰위원회, 2명): 사무국장, 자치경찰정책팀장

### □ 주요 내용

- (활동 현황) ①우범지대 야간순찰, 행사장 질서 유지, 각종 안전 캠페인 등 활동 추진, ②지역별 28개 지대, 586명 활동 중, '25년 신규 발대(해밀, 소정, 나성, 대평, 새롭) 예정
- (건의사항 청취·논의) 자율방범대\*에 충분한 예산 지원 요구
  - \*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시행(23. 4. 26.)에 따라 법정단체로 출범
  - 피복, 노후 차량 교체 등 '25년 예산 694백만원 반영 요구(전년 대비 증481백만원)
- ⇒ (집행부) '23년 자율방범대 소관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됨, 관리·지원 체계 정착 및 개선을 통하여, 자율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
- ⇒ (행정복지위원회) 지역의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자율방범대원께 감사드리м,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 공감, 다만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, 예산의 우선순위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,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음